3. 미경산돈에서 배란수를 늘이는 방법

○ 번식능력이 아주 우수한 모돈군에서 선발을 한다. 이것이 어려우면 번식성적을 충분히 알고 있는 모돈에서 유래하는 후보돈을 선발한다.
○ 후보돈은 체중 65kg에서 1차 선발 이후 양질의 단백질과 에너지 사료를 급이하여 일정 속도로 발육시킨다. 비육돈보다 체지방을 많이 축적시켜 교배시(220일령)에 등지방두께를 18~20mm가 되도록 한다.
○ 체중 85kg까지는 웅돈과의 접촉이 없도록 하고, 체중 95~105kg 가 되었을 때 접촉을 하여 효과를 최대로 한다.
○ 교배예정일 10~14일전부터 라이신 1일 24g, 에너지 10,994Mcal인 사료를 급이하는 강정사육을 한다. 강정은 젊고 야위고 체중이 가벼운 돼지에게는 효과가 있으나, 체중이 크고 체지방이 18~20mm 가 된 돼지에게는 효과가 없다.
○ 발정을 유도시킬 시기에 이르면 웅돈과 상시 접촉을 시킨다. 이 시기에는 사료도 충분히 급이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한다.
○ 발정을 조사한다. 시기가 되어도 발정을 보이지 않는 돼지는 조치를 취한다.

4. 경산돈의 배란수를 늘리는 방법

○ 비유 중에 모돈의 보디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도록 한다. 비유중 모돈의 체지방 손실정도에 따라 다음 발정시 배란수가 달라진다.
○ 사료를 충분히 먹인다. 이유시 보디 컨디션이 2.5 또는 2 이하가 되면 이유후에 무제한 급이를 한다. 보통(2.5~3.0)이나 비만(3.5~4.0)인 경우는 식욕에 따라 사료량을 조절한다.
○ 모돈에 대한 조명을 충분히 한다(300~350럭스 밝기로 하루에 18시간). 계절에 따른 호르몬 분비의 변동을 없앨 수 있다.
○ 웅돈에 의한 과도한 자극은 피한다. 배란은 조용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잘 된다.
○ 모돈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아드레날린이 생성되어 교배에 나쁜 영향을 준다.
○ 여름철에는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어야 한다. 냉방장치를 갖추도록 한다.